옥토버 스카이 감상문

20151548 박준서

옥토버 스카이, 즉 10월의 하늘이란 이 영화는 주위의 만류, 조롱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 로켓을 만들고 후에 NASA에 입사하여 우주 왕복선 임무를 위한 우주 비행사를 훈련시키는 공학자 호머 히컴의 실제 이야기에 기반을 둔 내용으로 전개된다.

냉전 중인 1957년 10월, 콜우드라는 탄광촌에서 호머 히컴은 소련의 첫 인공위성 발사 성공 뉴스를 듣고 밤하늘에 떠있던 스푸트니크 1호를 본 뒤, 자신이 진정으로 되고 싶어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친구들 퀜튼 윌슨, 로이 리, 오델 3명과 함께 로켓 연구에 빠지게 된다. 호머는 자신의 아버지를 비롯해 주위의 반대, 조롱 그리고 환경적 요소에도 굴하지 않고 여러 시행착오 끝에 성공하게 되고, 더 나아가 전미과학경진대회에서 금메달을 받게 된다.

영화를 보며 팀원도 팀원이지만 리더인 히컴이 대단하다고 느껴졌다. 우선 리더로서 가진 덕목 중 첫 번째로는 그의 자신감과 결단력이 눈에 들어왔다. 히컴 자신의 꿈이 있다고 하더라도 퀜튼이라는 친구와 라일리 선생님이 없었더라면 로켓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없었을 것이다. 반에서 nerd였던 퀜튼에게 자신의 꿈을 위해서 아무 거리낌없이 다가갔던 모습과, 선생님께 정보를 듣고 실행해나가는 모습이 인상깊었다. 두 번째로는, 마을 내 인맥이 꽤 넓고 친화력이 좋았다는 것이다. 탄광 소장님인 아버지의 직원들 중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분들께 용접술을 배우고, 로켓 실험에 필요한 재료들을 얻기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구했던 것을 보며, 친화력을 기반으로 인맥을 조금씩 넓혀나가며 이를 기반으로 꿈에 다가가는 모습이 기억에 남았다. 세 번째로는, 책임감과 노력&끈기, 그리고 마음이 넓은 것이 본받을만했다. 자신이 시작한 로켓 연구에 대해 엄청난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끈기와 중간에 불화가 살짝 있기도 했지만 책임감을 갖고 팀원들을 이끌어 연구한 점, 중간에 아버지의 부상으로 집안을 이끌기 위해 탄광에서 잠시 일했던 책임감, 그렇게 탄광에서 일하는 와중에도 꿈을 향해 잠을 줄여가며 공부하는 노력, 그리고 결국 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하고 마지막 장면에서 자신의 꿈을 반대하고 조롱했던 사람들 앞에서 로켓 발사를 시연하며 자신의 팀을 도와주고 응원해줘서 고맙다 말하며 아버지께 로켓 점화 스위치를 건네는 것을 보며 정말 마음이 넓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팀원들의 경우에 첫 번째로는 의리와 믿음이었다. 로이 리와 오델은 원래 친한 친구였어서 히컴을 믿고 있었고, 퀜튼도 나중에 로켓으로 연결되어 친해진 친구지만 3명 전부 히컴을 믿고, 히컴이 탄광에 들어갔을 때도 중간중간 찾아와 대화를 나누고, 과학경진대회에 출전할 1명으로 히컴을 당연히 밀어주는 등 큰 믿음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로는 역할 분담이었다. 히컴이 말하지 않아도 필요한 재료를 찾고, 해야할 일들을 자신들이 아는 지식을 이용해 수행해나가며 팀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 있어서 불을 붙여주었다. 세 번째로는 용기와 끈기라고 느껴졌다. 리더도 리더지만, 팀원들이 살던 콜우드라는 탄광촌의 환경이라는 틀 안에서 미래가 밝지 않았지만 그들의 꿈을 향해 노력하며 주위의 조롱에도 굴하지 않는 용기, 리더가 힘든 일이 있으면 북돋아주는 용기, 수많은 시행착오에도 굴하지 않는 끈기 덕분에 성공했다고 생각했다.

영화를 보면서 결말은 이미 눈에 보였지만, 스토리 진행 과정만으로도 감정이 차오르는 느낌은 오랜만이었다. 영화를 정말 인상깊게 보아서 여러 정보를 찾던중 October Sky가 호머 히컴의 자서전 Rocket boys의 애너그램이라는 것을 알고 더욱 흥미로웠다. 또한, 국내에도 호머 히컴과 같은 분이 계셨다. NASA 수석 연구위원인 최상혁 박사님으로, 초등학교 시절부터 로켓과 우주에 빠져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연구를 하신다고 한다. 대학 시절 로켓 시연 중 오른손을 잃는 사고를 당하셨지만 그에 굴하지 않고 로켓에 대한 열정으로 노력하셨고 현재는 한국에 NASA 교육센터를 세우겠다는 계획을 실현 단계에 두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호머 히컴이나 최상혁 박사님처럼 꿈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 반성도 되고, 지금 내 목표인 취업을 향해 달릴 원동력도 다시 샘솟았다. 또한, 이 분들처럼 무엇인가 하나에 몰두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부끄러워졌다. 졸업 후 취업을 하고, 내 꿈이 정말 무엇인 지 찾고 그에 한 번 몰두해보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겠다.